

# 전기요금 겁나서...선풍기도 못 켜는 쪽방촌 노인들



<상> 더위에도 계층이 있나

광주·전남에 유례 없이 길었던 장마가 끝나고 한증막 더위가 찾아왔다. 폭염(暴炎)과 같은 이상기후는 항상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다. 올 여름에도 어김없이 '역대급 폭염'이 찾아왔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야외 노동자들은 폭풍 썬는 무더위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버틸 수 밖에 없다.

지난 5월 전기료가 인상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에어컨 한 번 켜기 힘들고 날마다 온열질환자가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노동 현장에 지고 있다.

이에 광주일보는 3회에 걸쳐 '폭염도 재난이다'라는 주제의 기획 기사를 통해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 실태와 항구적인 폭염 대책 마련을 모색해 본다.

"에어컨이요? 비싸서 못 써요. 여태껏 생활 생 각조차 해본 적 없네요."

2일 오후 2시께 찾은 광주시 북구 유동의 한 여관 에 3년째 홀로 세들어 살고 있는 이완섭(68)씨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지친 듯 한숨을 쉬었다.

이씨는 9일째 이어지는 폭염에도 올해 에어컨 한 번 켜 보지 못했다. 여관 1층 복도에 '높은 전기료 때문에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라'는 경고문이 붙었 기 때문이다.

이씨의 집은 실내와 실외 온도 차이가 없을 만큼 무더위 방 안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흐를 정 도였다. 그런데도 이씨는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 조 차 켜지 못했다. 기초생활수급만 받고 사는 터라 그 령치 않아도 생활비가 부족한데 전기료까지 오르다 보니 부담이 큰 탓이다.

더구나 3평짜리 좁은 방에 살림살이를 최대한 쌓 다 보니 대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아 바람이 통할 공 간조차 부족했다.

이씨는 "무더위쯤터라는 경로당에 가 봤자 기초 생활수급자는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집에서 버티 지니 전기료가 많이 나올까 무섭다"며 "집에서는 몸 에 물을 끼얹으면서 버티고 밖에서는 은행이나 기 차역 대합실을 돌아다니면서 더위를 식히는데, 빨 리 더위가 한 폭 썬기만 바랄 뿐이다"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광주·전남에 낮 최고기온 35도를 넘나드는 무더

생활비도 없는데 전기세 감당못해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더 가혹 한증막 실내 피해 거리로 내몰려 광주 기초생활수급자 9만여명 폭염 혁혁거리며 힘겨운 여름나기

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쪽방촌, 달동네 등지에 거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하 고 있다.

이들은 나날이 전기료가 오르면서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조차 틀기 무서운 시절이 됐다고 입을 모았 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광주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9만 5975명이다. 차상위계 층 4만 1810명까지 포함하면 13만명이 넘는 취약 계층이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고물가와 취업난 등으로 광주 기초수급자 수 또한 2020년 8만 4762명, 2021년 9만 1548명, 2022년 9만 3153명으로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정부는 지난해 2분기부터 전기료를 매 분기 인상하고 있어 취약계층에게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전기료를 kWh(킬로와트·시 간당 전력 소비량)당 8원 인상했다. 앞서 지난해에 는 kWh당 전기 요금을 2분기 6.9원, 3분기 5.0원, 4분기 7.4원 올렸으며, 올해 1분기에도 kWh당 13.1원 인상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kWh당 40.4원의 전기요금이 오른 것이다.

이 때문에 취약계층은 전기료가 많이 나올지 모 르다는 우려에 에어컨 한 번 켜지 못하고 부채질만 으로 여름을 나고 있다.

이날 방문한 광주시 동구 지산동의 김홍남(여· 80)씨의 집은 들어서자마자 숨이 턱 막힐 만큼 무 더웠다. 김씨의 집은 골목이 좁은 지산동 달동네에 자리잡은 터라 아무리 문과 창문을 활짝 열어놓아 도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았다.

선풍기만 틀어도 한 달 전기요금 3만원 넘게 나오는 바람에 전기료 걱정에 에어컨을 켤 수도 없 는 노릇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전기료 중 3분의 1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는 하나, 한 달 27만원인 기초생활수급비로는 월 2만원 수준의 전기요금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김씨는 "10여년 동안 바로 앞 집에서 단칸방 생 활을 하다가 지난해 조금 더 여유로운 집으로 옮겼 는데, 갑자기 월 전기료가 4000원에서 3만원대로 뛰었다"며 "조금이라도 아껴보겠다고 전기밥솥도 안 쓰고, 밤에도 선풍기만 틀어놓고 자느라 매일 잠



이완섭씨가 2일 광주시 북구 유동의 여관 '달방'에서 더위에 지쳐 앉아 쉬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

을 설치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은 요금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찼다.

같은 날 광주시 서구 금호동의 시영아파트에서 사는 신경자(여·70)씨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신씨는 3년여 전 딸의 도움으로 집에 에어컨을 설치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 좀처럼 에 어컨 전원 버튼을 눌러볼 일이 없다고 전했다. 초등 학교 6학년인 손자가 찾아올 때나 한 번씩 트는 계 전부지, 혼자 있을 때는 대문과 창문을 열어놓고 부

채질로 하루를 버틴다는 것이다.

신씨는 "집에 있어봐야 답기만 하고 밖에 나가 이 옷들과 어울리는 게 즐거우는데,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 밖에 한 번 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며 "그렇다 고 별다른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니 이웃들끼리 건강 안부를 챙겨 가며 잘 이겨내야겠다는 생각뿐이다" 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사건인사이드

### 고장난 선풍기 갈등에...살인 부른 폭염

70대 세입자, 여인숙 주인 살해

'고장난 선풍기를 고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들어 살던 여인숙 주인을 살해한 70대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동부경찰은 2일 오전 11시 30분께 광주 시 동구 계림동의 한 여인숙 1층에 있는 부엌 에서 여인숙 주인을 살해한 A(76)씨를 살인 등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방에 선풍기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여인숙 주인 B(73)씨를 불러 고쳐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여인숙에는 에어컨이 별도로 설치돼 있지 않고 선풍기만 설치 돼 있다.

이에 B씨가 '술 마시고 자주 소란을 피운 다', '시설을 험하게 다루지 말라'고 반발하면 서 말다툼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퇴거할 것을 요 청했는데, 이에 격분한 A씨가 근처에 있던 흉 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소란을 듣고 찾아온 B씨의 아 내에게도 얼굴에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후 여인숙에 남아 있다가 현장을 목격한 다른 세입자와 이웃 주민의 신고로 현 행범으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용직노동자로 3년전부터 이 여인숙에 세들어 살면서 B씨와 자주 마찰을 빚었다. 특히 A씨는 B씨가 본인보다 세살이 어 린데도 명령조로 말을 하는 등 무서웠다는 이유 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폭염 노동자 휴식권 보장하고 작업 중지해야"

정의당 광주시당 성명서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자 정의당 광주시당이 광주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에 "폭염시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작업중지 지점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2일 성명서를 내고 "광주·전 남 지역에 지난달 25일부터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재난문자만 보내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 이라고 비판했다.

또 "폭염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까지 상향 되고 지난달 31일 기준 광주지역 온열 질환자가 28 명 발생했지만 대응과 대책은 평년과 다름없이 평 이하다"면서 "광주시는 지하철 2호선 공사현장 노 동자들의 대낮 근무를 최소화 하고 광주지방고용노 동청 또한 집중적인 단속과 계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는 옥 외작업을 단속하고 35도 이상이면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는 것에 맞춰 '폭염 시기 공사 연장 제도' 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기후 위기는 이제 재 난으로 타쳐왔고 이는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위협 적으로 다가온다"며 "중요한 것은 온열질환 사고에 앞서 현장의 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아침 도심 한복판서 여성 추행한 20대 입건

아침에 도심 한복판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20 대 남성이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달 31일 A(21)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카메 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8시께 광주시 서구 치 평동 상무지구 일대에서 일면식도 없던 2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이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던 B씨 를 한적한 골목길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강제로 입

을 맞추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자신의 휴대전화로 추행 장면을 촬영 하고 B씨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 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 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 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전원범 문학 전집은 시 325편이 담긴 「망초꽃으로 서서」, 시조 214편으로 구성된 「선운사 동백꽃」, 동시 281편을 수록한 「둥근해를 공굴리며」 그리고 대표작을 엄선한 「전원범 문학선 99」 등 총 4권이다. 전 시인은 1960년대부터 동시도 시가 꽤야 한다고 선구적으로 주창하고 '동심의 시'라는 개념을 정립해 오늘날 동시의 수준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합뉴스> 2023. 4. 27.

그의 시론을 압축하면 '시는 어렵지 않아야 한다. 시는 일상의 말이 아니다. 시어는 시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석된 말'이라는 주장이다. - <뉴스 1> 2023. 4. 29.

'해의 시인'이라는 별칭은 그가 발표한 연작시 '해'에서 비롯됐다. 모두 70여 편을 썼고 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광주일보> 2023. 4. 26.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둥근 해를 공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

